



## 정부 차원의 광산업 육성의 지원책에 대해 제안을 하신다면.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했던 광통신 기술개발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이 소재 및 부품을 고가로 외국에서 수입해서 광통신기와 광통신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아직도 국내에서 광소재나 광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전문기업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광통신 기기나 시스템의 핵심 소재 및 부품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선진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고, 신제품 개발 속도도 경쟁업체에 비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전 산업에 걸쳐 중요한 핵심기반 기술로 자리 잡은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벤처기업 창업지원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애로기술개발에서부터 경영 요소별 자문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체의 수출 증대는 물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발굴, 육성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 광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방안을 꼽는다면.

『광통신부품에 쓰이는 능동 부품류는 반도체공정설비 때문에 대기업위주로 성장하였고 수동부품류는 중소기업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수동부품들은 교부가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생산의 어려움과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발전이 늦어진 상

태입니다. 초고속 광전송 시스템을 위한 능동 및 수동 광부품들은 시스템 내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품이지만 개발의 난이도로 인하여 국내에서의 개발은 연구소, 학교 위주의 선행 연구정도로 매우 미비한 상태입니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광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광부품들을 상품화하여 판매중이며 필드에서 사용 중입니다. 국내 망에 이용되는 대부분 광소재는 거의 수입품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몇몇 광통신부품 업체들이 세계 우수기업의 상품화에 도전하고 있으나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품화와 연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이 더 다양한 아이템이 개발, 생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인터넷 통신의 확산으로 정보 통신량이 급격히 증가해, 보다 빠르고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용량 전송 기술의 발전 경향은 WDM 전송 기술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도시내 광분배망(Metro Network)의 경우 더욱 넓은 파장 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전송 기술을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광대역 광전송의 핵심이 되는 초고속 송수신 모듈, 고속 스위

